

# 스티브 루카서의 세션워크 특징에 관한 연구 - ‘마이클 잭슨의 “Beat It”을 중심으로 -

유웅열,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 [sadwerthers@gmail.com](mailto:sadwerthers@gmail.com)  
\*entheos@chungwoon.ac.kr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teve Lukather's Session Works - Focused on Michael Jackson 'Beat It' -

Ung Ryeol Yu,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 요 약

기타리스트 스티브 루카서(Steve Lukather)의 세션워크를 분석하여, 그의 연주 스타일과 기법이 마이클 잭슨의 곡 "Beat It"에 미친 영향을 조명 한다. 'Beat It'은 1982년 발매된 앨범 'Thriller' 앨범의 대표곡으로, 록과 팝이 결합된 독특한 사운드로 많은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 스티브 루카서는 이 곡에서 리듬 기타와 텍스처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역할은 곡의 에너지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스티브 루카서의 연주 스타일을 곡의 구조적 요소와 연주 기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루카서의 연주가 곡의 전반적인 사운드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리고 기타 톤과 장비 선택이 어떻게 이러한 사운드를 창출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세션 기타리스트로서의 그의 역할이 대중음악의 성공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스티브 루카서의 세션 작업이 대중음악의 완성도와 매력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세션 기타리스트의 음악적 기여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타리스트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에서 세션 뮤지션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 1. 서 론

스티브 루카서(Steve Lukather)는 록 밴드 토토(Toto)의 창립 멤버이자 다수의 세션 작업에 참여한 기타리스트로서, 대중음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의 기타 연주는 록, 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이루어진 세션 작업을 통해 독창성과 유연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러한 점은 그의 연주 스타일을 독특하게 만들어 주었다. 특히 마이클 잭슨의 'Beat It'은 그의 세션 작업 중 가장 상징적인 곡으로, 록과 팝을 융합하여 독특한 사운드를 창출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곡에서 스티브 루카서는 리듬 기타와 텍스처를 통해 곡의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Beat It'을 중심으로 스티브 루카서의 세션워크가 그의 연주 스타일과 곡의 구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루카서의 연주 기법, 장비 사용, 그리고 리듬 패턴의 기여도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며, 특히 그의 연주가 곡의 전반적인 사운드와 분위기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세션 기타리스트로서 그의 역할이 대중음악의 성공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세션 작업이 이후

대중음악 제작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스티브 루카서의 세션워크에 대한 분석은 기타리스트뿐만 아니라 세션 뮤지션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션 뮤지션이 단순히 백그라운드 연주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곡의 완성도와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중음악의 창작 과정에서 세션 기타리스트의 중요성과 그들이 음악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2. 본 론

### 2.1 Beat It의 구조

곡의 형식과 진행은 다음<표 1>과 같다.

[표 1] 구조

| Part        | measure      |
|-------------|--------------|
| Pre Intro   | 1~6          |
| Intro       | 8~15         |
| Verse 1     | 16~31        |
| Chorus 1    | 32~43        |
| Verse 2     | 44~59        |
| Chorus 2    | 60~75        |
| Interlude 1 | 76~83        |
| Interlude 2 | 84~91        |
| Guitar Solo | 92~107       |
| Chorus 3    | 108~Fade Out |

## 2.2 Beat It의 분석

[그림 1] Beat It의 Intro

Beat it의 intro는 1~4마디는 전형적인 에너제틱 록 사운드를 특징으로 하며, Em 코드와 D 코드의 반복을 통해 곡의 기초적인 리프를 형성하고 있다. 기타는 첫 번째 마디에서 Em 코드를 기반으로 한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리프를 연주하며, 이때 주로 사용되는 연주 기법은 파워 코드(Power Chord)와 디스토션(Distortion) 효과를 이용하여 공격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이 리프는 Em 코드의 개방현을 사용하며 시작되며 D 코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슬라이드 기법이 활용되어 음과 음 사이의 연결을 부드럽게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슬라이드와 디스토션을 결합한 연주는 곡에 독특한 텍스처와 에너지를 더해준다.

5~8마디에 높은 음역대에서 이루어지는 더빙트랙은 퍼커시브한 뮤트 리듬 플레이와 더블스톱을 활용 하여 곡의 긴장감과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주 방식은 마이클 잭슨의 'Beat It'에서 스티브 루카서의 기타가 곡의 분위기를 설정하고, 곡 전체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루카서의 기타 인트로 연주는 곡의 도입부에서부터 청중의 이목

을 집중시키며, 팜 뮤트(Palm Muting) 기법과 강한 스트로크를 통해 곡의 리듬감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기법의 조합은 곡의 특징적인 리프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이후 이어지는 보컬과 솔로 파트에서의 사운드와 잘 어우러져 전체 곡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한다.

[그림 2] Beat It 의 Verse

Verse는 Em, D, C 코드가 주요 코드 진행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연주하여 곡의 리듬과 멜로디를 지지하고 있다. Em 코드와 D 코드는 곡의 전반적인 무게감을 형성하며, 기타의 반복적인 스트로크를 통해 곡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각 마디에서 기타 연주는 뚜렷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Em 코드에서 9번 프렛의 음을 반복적으로 연주함으로써 곡의 베이스 라인을 강조하고 있다. D 코드로 전환될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음을 사용하여 곡의 톤을 조절하며, 이러한 음의 변화는 보컬의 진행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C 코드 부분에서는 5번 줄과 3번 줄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안정적인 사운드를 형성하고, D 코드로 이어지는 흐름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코드 진행과 리듬 연주는 곡의 분위기를 설정하고, 보컬의 전달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각 코드 사이의 전환에서 사용된 스트로크 패턴은 곡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부여하여 곡의 다이내믹스를 풍부하게 만든다. 이러한 요소들은 스티브 루카서의 연주가 곡의 구성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horus 는 곡의 메인리프인 Intro 기타를 계속 활용하여 연주한다.



[그림 3] Beat It의 Interlude 1

Interlude 1은 E5 코드로 연주되며,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리듬 패턴을 통해 곡의 일관된 에너지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부분에서 기타는 6번 줄의 개방현을 반복적으로 연주하며, 저음역대의 무게감 있는 톤을 활용하여 강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E5 코드의 반복적인 스트로크는 보컬의 "Beat it" 구절과 잘 조화되어 곡의 중심적인 메시지를 강조한다. 각 마디의 첫 번째 박자는 강하게 연주되어 강조되며, 이후 박자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스트로크가 반복되면서 리듬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코드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곡에 역동성을 부여하며, 곡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기타의 연주 방식은 리듬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드럼과 베이스와의 조화로운 앙상블을 형성하며, 인터루드 부분에서 곡의 전환과 재도약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스티브 루카서의 연주가 곡의 텍스처를 강화하고, 곡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 Beat It의 Interlude 2

Interlude 2 기타 리프는 Intro 5~8마디에 나왔던 부분을 반복한다.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이 부분은 곡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며, 주로 E5 코드와 반복적인 스트로크 패턴을 기반으로 연주된다. 이 리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연주 도중 빈번하게 사용되는 퍼커시브한 뮤트(X 표시)로, 이를 통해 리듬의 구분

을 명확히 하고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기타는 12프렛과 9프렛 사이에서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하여 음의 전환을 부드럽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슬라이드는 음의 지속성을 강화하면서도 변화를 만들어 곡의 흐름에 다이내믹을 더한다. 특히, 뮤트와 슬라이드 기법의 조합은 이 구간에서 리프가 지루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텍스처를 제공하며, 기타가 곡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 3. 결 론

스티브 루카서의 세션워크를 분석하여 그의 연주 스타일과 기법이 마이클 잭슨의 곡 'Beat It'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스티브 루카서는 록과 팝을 결합하여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Beat It'에서 리듬 기타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곡의 에너지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그의 파워 코드와 디스토션 사용, 뮤트와 슬라이드 기법은 곡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곡의 다이내믹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핵심적인 요소였다.

'Beat It'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루카서의 연주가 각 구절 및 코러스, 기타 솔로 부분에서 곡의 흐름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드럼과 베이스와의 조화로운 앙상블을 형성하여 곡 전체의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연주는 단순히 곡을 보조하는 배경적인 역할을 넘어, 곡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 텍스처와 역동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 연구는 세션 기타리스트로서 스티브 루카서의 역할이 대중음악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재조명하고, 세션 뮤지션이 단순한 백그라운드 연주자가 아닌 곡의 완성도와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중음악 창작 과정에서 세션 뮤지션의 중요성과 그들이 음악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2018
- [2] "Moonwalk" 1988
- [3] Michael Jackson "Beat It"